

<b>민 진 전</b>	<b>에 진 전</b>	<h1>BUDDHANARA</h1>
----------------------	----------------------	---------------------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매월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매월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매월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기도 법회  
 매월 넷째주 일요일 11시 108 대참회 기도 법회  
 다섯째주 일요일 야외 특별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이달의 법구경: - 건강은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다  
 믿고 의지함은 가장 귀한 친구  
 열반은 최상의 안락이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옹양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http://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003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 사회 전반에 ‘금강경’ 붐 인다

복잡한 현대인들에게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 독송부터 미술,영화까지 무한한 상상력 제공

“〈금강경〉을 읽고 나서 슬펐습니다. ... 슬픔이 이렇게 밀려드는 경전은 처음 봤어요”(조계종의 소의 경전인 〈금강경〉을 모티브로 110억 규모의 제작비를 쏟아부은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을 연출한 장선우 감독) 조계종의 소의경전이자 대승경전의 ‘꽃’으로 불리는 〈금강경〉에 붙는 수식어다. 〈금강경〉이 현대인들에게 하나의 문화코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내적으로는 이른바 신심있는 불자들을 중심으로 ‘독송’(경을 소리내어 읽는것)에서 〈금강경〉 독송회 등 단체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출판에서도 꾸준히 그 인기를 독점하고 있다. 밖으로는 영화 미술작품 오케스트라 실상사의 금강경 결제 등 불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번쯤 관심이 있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의 장쩌민 전 국가 주석조차도 “공산당 총서기로서 무신론자이지만 밤 늦은 시각 일이 없을 때에는 금강경을 즐겨 읽는다”고 밝힐 정도다.

매우 견고하여 그 어떤 것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것을 상징하는 ‘금강’이란 매혹적인 단어만으로도 사람들을 단숨에 사로잡는 〈금강경〉의 폭발적인 ‘마력’은 어디에 있는가. 먼저 불교내적인 신행관으로만 본다면 ‘공덕’의 문제다. 금강경을 독송과 사경만 해도 ‘공덕’이 쌓인다는 ‘믿음’이 보편적인 의식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금강경을 틈틈히 독송합니다”(100만 km 무사고를 달성한 김복식 기관사) “공직생활동안 금강경 사경 10번 성취를 목표로 했는데 9번밖에 하지 못해 서운합니다”(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금강경〉은 ‘수지독송 자체만으로도 공덕이 있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그 ‘위신력’이 곳곳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승단이나 문화쪽에서는 〈금강경〉이 갖고 있는 사상적 매력에 이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 동안겨 결제중 실상사에서 진행된 ‘금강경 결제’. ‘금강경 결제’의 핵심은 ‘금강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강경이 소의경전인데 불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돌아보아야 한다”(재연스님) 수행의 형태와 삶의 형태 나아가서 종단운영의 형태 나아가서 종단운영의 형태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른지 그른지에 대한 기준을 〈금강경〉으로 삼아야 한다”(해강스님). 금강경의 핵심은 허상을 타파하고 집착과 대립을 부정하고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데 있다. 김용옥 등 한국사회의 지성인들이 〈금강경〉에 대해서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다.

〈금강경〉을 문화적으로 해석 표현하는 작가들은 주로 사상적 접근을 시도한다. “옹고 그림 나와 너 등 분별심에 사로잡힌 중생들이 만들어낸 허상을 꼬집고 싶었습니다”(금강경을 주제로 95년 광주비엔날레 ‘목 잘린 불상’출품 눈길을 끈 안성금씨). 이른바 ‘신심’있는 불자들의 ‘상징’으로만 자리잡고 있던 〈금강경〉은 이제 불자들 손을 떠나 현대인들의 정신문화적 현상을 담보할 하나의 문화코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정신적인 ‘공황’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에게 〈금강경〉이 하나의 문화코드로서 어디까지 자리잡을 것인가. 매우 궁금한 대목이다.

불교신문사 이상균 기자 [gyun20@ibulgyo.com](mailto:gyun20@ibulgyo.com)

## [기획] 왜 금강경인가? <上>

### 허상 타파 통한 참자유 길 열어

지난 4월 9일 대구시민회관 저녁 7시. 바이얼린 비올라 첼로등 검은옷을 입은 30여명의 악단과 흰옷을 입은 100여명의 합창단들이 객석에 앉은 2000여명의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있었다. ‘산자와 죽은자’의 문을 열어 죽은자들의 원혼을 달래는 ‘칸타타 금강경’의 시작을 알리는 인사였다. 1시간 30분 후 마지막 7장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교계최초로 오케스트라에 의해 〈금강경〉이 칸타타로 올려진 것이다. 작품성과 대중성 모두 뛰어난 작품이었다. 조계종의 소의경전이자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으로 잘 알려진 〈금강경〉이 단순히 불교인들이 애경(愛經)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문화적인 코드로 자리잡고 있다. 그차원도 광범위하다. 출판에서부터 영화 전시 칸타타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타종교인들에게까지 그 파장이 넓혀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이현주 목사. ‘어느 이름모를 스님’으로부터 금강경을 읽어보라고 건넨지 12년만에 〈금강경 해설서〉를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금강경은 모든 것을 깨트려서 시원합니다. 그러나 초보자들이 읽을 경전은 아닙니다. 색(色)을 깨친 사람들이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해하거나 헛 바람이 들수 있습니다.”(이현주 목사)

〈금강경〉은 수없이 많은 경전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최고의 ‘베스트셀러’다. 이유는 단 하나 그 많은 경전중에서 제대로 구색을 갖춘 경전이기 때문이다.

국내서만 해설서 수십여종, 역사 사회 직시하는 눈, 그리고 문화 예술 모티브로도 각광

“중국에 금강경이 번역되어 전해지면서 백권의 주석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번역 해설한 이들도 수백명에 이른다. 지금도 서점에 가보면 금강경에 관계된 책 십 수가지는 쉽게 볼 수 있다. 그만큼 금강경은 많은 분들이 애호했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고 그만큼 연구할 꺼리가 있고 그때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연구되어지고 표현되어지고 설명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만큼 금강경은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교육원장 무비스님) 시대의 상황과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연구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것. <금강경>은 ‘천의 얼굴’을 가진 셈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것은 바로 불교가 2600년 동안 평화의 종교로서 그 위대한 가치를 계승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혜’와 ‘자비’사상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었다. <금강경>은 이러한 가치의 정수를 간직하고 있는 사상과 삶의 보고(寶庫)이다.

“부처님이 설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나 ‘무주상보시’는 이론적 개념이나 허황한 주문이 아니라 사회부조리에 대한 경고이며 지금 이 땅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행동강령이다. <금강경>은 역사와 사회인식에 대한 불교적 시각을 명료하게 정리한 경전입니다. 고통에 처해있는 중생들에 대한 현실을 금강경은 목격하고 있다.”(김광하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운영위원) 그렇다면 문학 영화 음악등 문화적 코드로 자리잡고 있는 것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금강경>은 불교가 지향하는 공(空)에 관해 가장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금강경> 하나만으로도 불교의 핵심가르침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소재가 고갈’된 작가들에게는 또 다른 작품을 시도할 수 있는 매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욕망은 매 찰라 다르게 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삶은 갈등의 연속이다. 그래서 진리자체에 대한 부정의 거울을 통해 나의 매 순간을 반추하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나에게 작품에 대한 무한한 상상을 자극한다.”(정혜진 화가)

<금강경>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불교인들에게는 ‘기복’적인 ‘공덕’과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소재와 탈출구에 목마른 문화인들에게는 작품창작의 보고인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 극단화되고 있는 삶의 탈출구로서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균 기자 gyun20@ibulgyo.com

## 금강경이란...

### ‘공사상’이 핵심 및 경전 중의 베스트셀러

<금강경>은 공(空)사상을 근본으로 하는 반야부 계통의 경전 가운데 가장 널리 대중들에게 읽히는 경이다. 특히 선종에서는 5조 홍인대사 이래로 중시되어온 소의경전으로서 불교경전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경이다.

중심사상은 공사상이다. 철저한 공사상에 의해 번뇌와 분별하는 마음을 끊음으로서 반야의 지혜를 얻어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상을 천명하면서도 공(空)자가 한자도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이는 <금강경>이 대승불교의 초기에 성립된 것으로 아직 공이라는 술어가 확립되지 않았기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경에서는 대승과 소승이라는 의식도 분명하지 않아 두 관념도 아직 성립되기 이전의 경전으로 보여진다. 경전의 구성을 살펴보면 부처님의 제가 가운데 공의 이치를 가장 잘 터득하고 있었다는 수보리존자와 부처님이 문답식으로 대화를 전개하고 있다. 법회인유분 제 1에서 시작하여 응화비진분 제 32로 끝나고 있다. 한역에는 6종이 있으나 구마라집이 번역한 <금강반야바라밀경>이 가장 널리 유통되고 있다.

### 특별기고/ 무비스님(조계종 교육원장)

### ‘금강’처럼 견고한 깨달음의 지혜로 해탈의 언덕으로 안내

“본종의 소의경전은 금강경과 전등법어로 한다”는 조계종헌의 규정에서 보듯 <금강경>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소의경전이자, 불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경전이다. 2세기경 인도에서 성립된 반야부경전인 <금강경>은 인도 사위국을 배경으로 제자 수보리에게 공사상을 설한 경전.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강반야경>으로도 불린다.

당나라 현장(玄)스님(?~664)이 번역한 <대반야경> 600권 중 제 577권의 ‘능단금강분(能斷金剛分)’과 같은 것이나, <대반야경> 성립 이전에 <금강경> 부분만 독립된 경전으로 유통됐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일찍이 인도에서 무착(無着)·세친(世親)보살에 의해 주석서가 저술되고, 구마라집(鳩摩羅什)스님(344~413)에 의해 중국에서 번역서가 나오는 등 다른 많은 주석서가 나온 데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

<금강경>은 산스크리트 원본도 현존하며 한역 6가지 외에 서장역(西藏譯)도 있다. 최근엔 영어·독일어·프랑스어 등으로도 번역돼 서양학계에도 널리 알려졌다.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는 인도·중국·한국·티베트 등에 걸쳐 800여

가지가 된다고 하며, 불교의 모든 학파들이 <금강경>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적절한 분량으로 읽기 쉽고, 대승불교의 진수를 드러냈기 때문에 불교의 모든 학파와 많은 불자들이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선종을 표방하는 본종이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택한 것은 아마도 “한 곳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항상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고, 모양으로 부처를 찾거나 보지 말 것을 강조한 정신” 때문일 것이다. 물론 보살행을 강조한 <금강경> 실천행 역시 소의경전으로 만든 이유 중 하나에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조계선종의 원류에 자리 잡고 있는, 중국 선불교 6조 혜능스님이 <금강경> 독송을 듣고 깨달음을 이뤘다는 사실 역시, <금강경>에 대한 본종과 우리나라 불자들의 관심 증대에 일조했을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금강경>은 불교사상의 중심을 이루는 경이다.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이렇게 한번만 음미해 보아도 무엇인가 그 이름속의 오묘함이 자신도 알 수 없는 감정으로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다.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이해시키려 하지만, 설명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이 있다는 것이다.

‘금강’은 시련 속에서 빛나고 유혹 속에서 더욱 굳건해지며, 삼독(貪·瞋·癡)의 불꽃에 시달릴 때 새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구원의 지혜다. ‘반야’의 지혜란 광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계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그곳에 같이 머물며 작은 빛이지만 함께 나누고 더불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바라밀’은 이 언덕의 삶에서 저 언덕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뜻한다. 바라밀의 진정한 언덕은 수난과 고통이 현존하는 현재의 언덕이다.

<금강경>은 새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구원의 지혜요, 남도 살리고 자기도 살리는 진정한 지혜요, 인욕의 피안이요 지혜롭게 사는 피안의 세계를 직시하는 스승이요 부처님이다. 이것이 본종이 <금강경>을 소의경전을 삼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금강경>은 또한 삶과 실천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의 화두는 중생들의 삶에 있는 것이다.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슬픈 일이 닥쳤을 때 정말 무엇인가 의지해야 하고, 어떤 믿음에 의지해 무언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금강경>에서 찾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가 갈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금강경>에서 찾을 수 있다

## 법회소식 NEWS

- 불국사 주지 연암 선각스님이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한국에서의 법회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동안 일각 거사님과 반야심 보살님 및 신도님들이 스님이 안계신 사찰을 관리하시고 차질없이 법회들 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불국사 (Buddhanara Temple)가 미국 St. Louis 에 창건된지 어언 한돌이 지났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그동안 회장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제 인연이 도래해서 그동안 숙원했던 불국사 초대 회장님을 모시게 됨을 축하해 주십시오. 회장님은 불국사 창립이래 오늘날까지 주지스님 뒤에서 묵묵히 사찰을 지켜주셨던 분인 홍법 문정모 거사님이십니다. 이제 불국사는 주지스님, 홍법 문정모 거사님, 그리고 총무 보광 이진욱 거사님 및 이사회와 불국사 후원단체인 불국회가 힘을 합쳐서 사찰의 발전에 기여할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불국사 담당 진성 심환우 거사님, 스님의 손발이 되시는 일각 김영신 거사님, 시자 여여심 보살님들도 일선에서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신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8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백중 (우란분절) 기도가 있습니다. 백중은 부처님 오신날 만큼이나 중요한 불교 행사입니다. 우란분절에 보면 일년에 한번 백중날 지옥문이 열린다 합니다. 이날 신도님과 인연있는 모든 영가들은 물론이고 알게 모르게 원결을 짓게된 모든 짐승 및 벌레 영가들도 극락왕생할수 있도록 천도 기도 합시다. 불국사 신도님들은 빠짐없이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기도비는 \$50 입니다만 경제 사정상 어려우신분은 절충해 주십시오.
- **보시:** 한지 50장, 김 및 다수: 불국회 후원회 총무 청정혜 정혜주 보살님; 금강경 사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사경, 반야심경 사경: 덕운 김 진희거사님 모친; 새로운 불교 공부 5권: 여여심 이 인영 보살님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